

콜롬비아 농촌빈곤퇴치 프로그램개발 출장결과 보고

2010. 11.

이동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출장개요

1. 수원국 요청 사업 개요

□ 사 업 명: JUNTOS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및 식품안전성 제고
(Implementation of income generation, improvement of housing and food conditions of JUNTOS from a participatory process in Cundinamarca, Magdalena and Boyaca)

□ 목 적: 콜롬비아 농촌지역 빈곤퇴치 및 개발대상(FUNTOS)으로
소득 증대와 주거환경개선 및 식품안전성 제고를 통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대상지: Cundinamarca, Magdalena, Boyaca 주에서 각기 1개
대상지 선정

□ 사업규모/기간: 약 500만불(2011~13)

<잠정 검토중인 사업내용>

- 새마을회관건립(5개 지역*25,000USD) : \$125,000
- 주거환경개선(300호*5,501.45USD) : \$1,650,450
- 소득증대(300호*9,867.24USD) : \$2,960,160

□ 수혜자: 콜롬비아 3개도 5개 부락의 빈곤층(funtos) 약 300여
명

- FUNTOS프로그램은 극빈자 및 난민 등 150만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범 정부조직인 Action Social이 주도하고 있음

□ 협의대상자: Action Social(국제원조청: 콜롬비아 원조 총괄 기관)

2. 팀 구성,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단계별 임무

가. 팀 구성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임 무
외부 전문가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업 가능성 검토, 사업추진 방향 모색

나. 조사범위

- 콜롬비아의 농업·농촌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개관
- 콜롬비아 유관기관의 관련정책 내용 및 추진체계 파악
- 콜롬비아측에 준비한 제시한 빈민층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및 식품안전성 제고 프로젝트의 사업방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새마을운동모델의 축진을 위한 훈련프로그램개발, 지역사회 훈련센터와 장비 설치 등
 - 빈민층에 대한 안정적인 식품 공급과 건강한 식습관
 -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갖춘 주거환경개선
 - 빈민층에 대한 기술능력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창출

다. 조사기간

- 2010. 11. 15(월) ~ 11.22(월)

라. 조사방법

-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조사
- 관계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농가 방문 및 FUNTOS co-Planer 면담

마. 조사일정

일자	활 동 내 용	비 고
11.15(월)	○ 인천 출발(10:05) → 아틀랜타 도착(09:20) ○ 아틀랜타 출발(16:55) → 보고타 도착(21:48)	이동
11.16(화)	○ 관련사업 추진개요 및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설명 - The Red JUNTOS Strategy - Cooperation Project Koica-Red Juntos - Food Security Network Program ○ 사업지역 소개 - Department of Cundinamarca - Department of Magdalena - Department of Boyaca	보고타 오페라호텔 (Amalfi)
11.17(수)	○ 현지방문(Municipality of Tibana, Boyaca) - 시장 등 관계공무원 면담 - 농업생산자, 관련 사업가, 일선 co-Planer - FUNTOS 대상자 방문 ○ 현지체재	Tibana 테켄다마 호텔 (ElsaInfante)
11.18(목)	○ 이동(Tibana → Choconta) ○ 현지방문(Municipality of Choconta, Cundinamarca) - 시장 등 관계공무원 면담 - 우유집유사업 및 딸기선별-포장사업 견학 ○ 이동(Choconta → Bogota)	Choconta (시청회의실)
11.19(금)	○ 사전조사결과에 대한 종합토론 - 사전조사결과 정리 및 토론 - 향후 추진방법 및 일정	보고타 ActionSocial (VIP Room)
11.20(토)	○ 보고타 출발(10:30) → 아틀랜타 도착(15:38)	이동
11.21(일)	○ 아틀랜타 출발(00:30)	이동
11.22(월)	○ 인천 도착(05:45)	이동

※ 농촌빈곤퇴치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별개로 11월 19일 오후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콜롬비아 농촌개발원(incodor)을 방문, Juan Manuel Ospina Restrepo 원장 및 관계 직원들에게 우리나라 농공단지개발사업 설명

II. 수원국의 개발과제 제안내용

1. 사업요청 배경

□ 농촌개발의 중요성

- 콜롬비아는 전체 국토 면적 45.5백만km²의 약 24.4%인 11.1백만m²가 농촌지역인데 대부분이 영세소농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농업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이자 오랜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이 많은 나라로 이들에게 위생시설을 갖춘 주거환경 개선과 식생활개선, 그리고 소득원개발은 매우 절실한 당면과제임.
- 콜롬비아 정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농촌개발프로젝트의 추진배경

- 농촌지역의 주택개량과 빈곤퇴치를 위한 소득증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2010년 6월 KOICA 콜롬비아사무소와 Action Social, Red Juntos 등이 Boyaca주 Tibana시를 방문
- KOICA의 협조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개설한 “농촌개발정책: 한국의 경험에서 배우는 교훈(Rural Development Policy: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fo Columbia)” 이란 연수과정에 콜롬비아의 Action Social과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3명이 참석한 바 있음

- 한국과의 협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가능성 발견
- 특히 한국의 농촌개발과 베트남 및 아프리카에서 실시중인 새마을운동(SUM)모델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됨
- 연수과정에서 얻은 SUM의 적용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새로운 농촌개발프로젝트를 모색하게 됨

2. 요청한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체계

□ 프로젝트 개요

- 콜롬비아 Cundinamarca, Boyaca, Magdalena에서 지역 사회의 주민참여를 기초로 하는 새마을운동모델을 용용하여 소득원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식품안전성 향상 사업의 추진

□ 프로젝트의 목적

- 콜롬비아에서 새마을운동모델의 실증
- 대상지역과 지역조직,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난민들에게 “하면 된다(Can Do)”는 정신을 고취(지역사회 주도적 개발)
- 대상지역에 있는 JUNTOS 가정에 대한 균형잡힌 영양 공급과 소득창출, 주거환경 제공목적 달성
- 통합적인 개발을 통해 대상지역 농촌과 난민들의 빈곤 퇴치 및 어려운 생활조건 개선

□ 사업 대상영역과 내용

- 사업 대상영역은 다음 4가지로 구성됨
 - ① 새마을운동모델의 진흥을 통한 지역사회 주도적 개발: 주민참여, 자조, 근면, 협동 등
 - ② 식품안전성(Food Security) 향상
 - ③ 주거환경과 기본 위생시설의 개선
 - ④ 소득원개발

<표 1> 콜롬비아에서 요청한 농촌개발사업의 주요내용

사업영역	주요 사업 내용
새마을운동모델 확산	가족들을 지역발전과 환경개선, 팀워크를 위한 역량제고 등 능동적인 지역개발 주체로 육성 - 새마을운동(주민참여, 자조, 근면, 협동)에 초점을 맞춘 훈련프로그램개발 - 지역사회훈련센터의 설립과 장비 도입 이상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필요하며, 이 부분은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 가능
식품안전성 향상	JUNTOS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식품의 공급역량을 향상하고 영양측면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개선 - 이 부분은 RESA프로그램의 기술적 지원 활용 가능
주거환경과 기본적인 위생시설 개선	JUNTOS 가족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한 주택의 생활환경과 기본적인 위생시설 개선 - 현재 국가 주택정책에서는 생활환경개선에 능동적 참여 부족한데 새마을운동의 원칙을 통해 개선하는 새로운 접근
소득원 개발	JUNTOS 가족의 기술능력을 향상해서 소득증대 - 소득원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에 기술과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동을 조장하는 것임

□ 세부사업 및 소요예산 추정

- 콜롬비아에서 요청하는 농촌개발사업은 크게 <표 1>과 같지만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1) 새마을운동모델을 확

산하기 위한 마을회관건립,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식품안전성 제고, 그리고 (4) 소득원개발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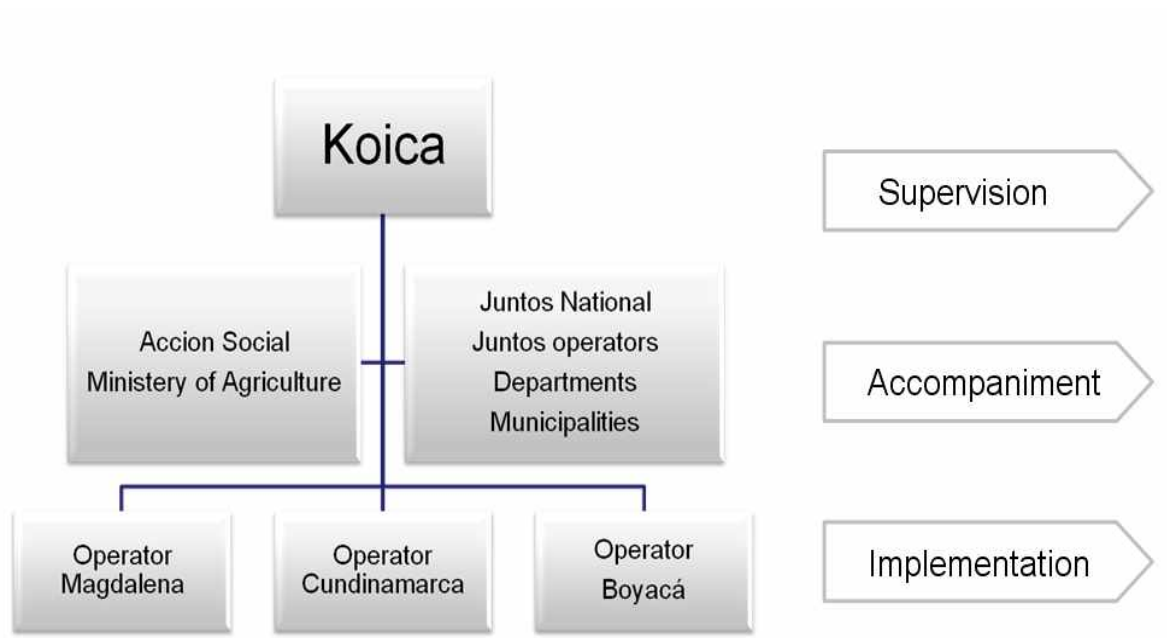
- 2011~13년 기간 중 3개 사례지역 5개시, 3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약 4,790,621달러 지원요청

- 새마을운동모델 확산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은 개소당 약 2만5천달러의 예산으로 5개 사업대상 시에 1개소씩 총 5개의 회관을 건립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호당 5,501.45달러의 예산으로 사례지역의 300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 소득원개발을 위해서는 호당 9,867.24달러의 예산으로 사례지역의 300 가구에 대해 소득원개발사업 지원
- 식품안전성향상을 위해 호당 183.38달러의 예산으로 사례지역 300 가구에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 사업추진체계 구상

- Action Social, Juntos, Resa, Incodor 등 콜롬비아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추진
- 통합적 농촌개발사업의 특징을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KOICA는 도별(3개 사례지역) 관리자 채용
 - 도별 관리자는 사업 대상지역의 4개 부분의 집행과정 관리
- 관련사업의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과정에 JUNTOS 참여

<그림 1>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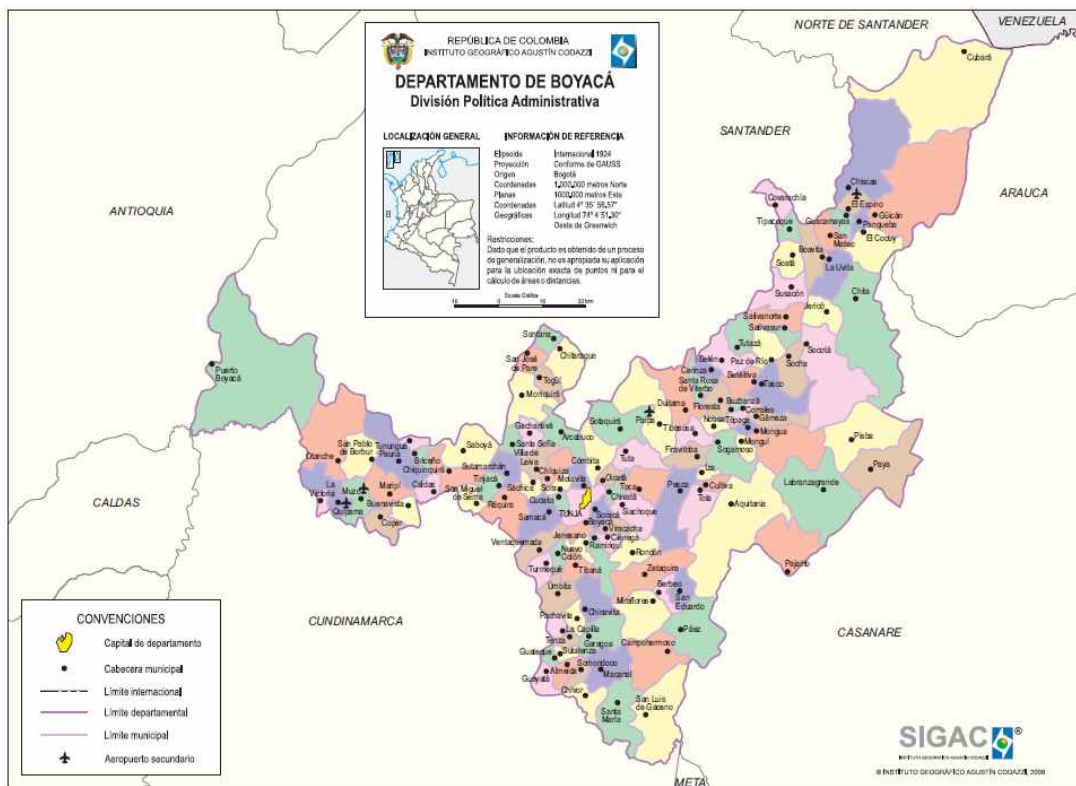
Ⅲ.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 BOYACA 주의 TIBANA 시

□ 사례지역의 개요

- BOYACA 주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시로부터 북쪽으로 약150km 떨어진 산간지역 농촌으로 사업대상지역인 TIBANA의 경우 대부분 과수, 채소 등 경종분야의 생계형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그림 2> BOYACA 주와 사례지역 TIBANA 시



□ 사례지역 관련정책의 추진실태와 한계

- BOYACA주의 주택정책으로는 2010년 Tunja, Sogamosa, Puerto Boyaca 등에 거주하는 난민 가족에게 38동의 신

축 및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

- 행정협약(Inter-administrative agreement No. 000794)에 의해 주정부와 Puerto Boyaca시는 지역 내의 난민들을 위한 100동의 농촌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공동출자하기로 하였음
- 하지만 중앙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 예상
-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해 ① 2008~10년 기간 중 222,249명에 대해 건강한 식습관교육(Feeding Plan to Learn PAPA), ② 미성년 노동자를 보유한 2,380가구에 대해 미성년노동퇴치(Child Labour Eradication), ③ 2009~10년 기간 중 아프리카-콜롬비아사회 등을 포함한 350가구에 대한 지원
- PAPA계획을 통해 주정부가 학교에서 식습관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부족
- 소득원개발을 위해 ① 2008~10년 기간 중 1,061명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협동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② 같은 기간 농촌지역의 빈곤여성 252 가구를 대상으로 생산성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③ 2009~10 기간 중 400명의 난민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없고 지자체에서도 자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TIBANA시의 시장 및 관계공무원, 주민 면담결과

- 주민들의 8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한 자급농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중간상을 통해 유통
 -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가공 및 유통단계 참여 필요
- 지역사회에 협동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종종 농업부 등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협동심 고취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소규모 농업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동조직이 없음

<그림 3> TIBANA 시 관계공무원 및 주민들과 면담



- 농업생산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정농산물의 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과 농가소득 불안정을 경험

하고 있음

-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개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데, 이는 시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큼
 - 농기계나 자재, 장비 등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자재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유기농비료생산경험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음
- 영세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가공이나 수확 후 처리과정이 없이 소비되고 있음
 - 지역 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대부분 자가소비로 소진되고 상업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 지역의 농업인들이 주로 생산하는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없고, 크기나 품질에 있어서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음
- 농촌지역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도시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음
 - 지역 여건상 농촌체험관광산업을 육성할 가능성 있음
- 현재 시에 존재하는 공예품협동조직(인초공예)의 경우 취득가격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협회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시장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전통공예품은 지역에서 채취하는 인초의 안정적

공급이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관건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구입해서 재배할 수 있다고 함

- 보고타시에 있는 공예협회에서 기술을 지도하여 기능공 양성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농촌개발을 위한 투자는 위기상황이나 생산자를 위한 특수상황에 한정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시단위에서는 별도의 농촌개발 예산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농촌개발사업 추진 시 공동재정부담 등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음

□ TIBANA시 외곽의 주거환경개선 대상 가정방문

- 주거환경개선 대상자로 고려하고 있는 극빈자 가정(FUNTOS family)의 A씨/(29세, 막노동일)를 방문한 결과 외딴 산기슭에 위치한 독가로 약1000m² 토지에 딸린 가건물을 3년 전 구입하여 부인과 3명의 자녀 등 5식구가 함께 살고 있음
- 가건물은 슬레이트지붕에 흙바닥으로 누추하지만 상수도 와 화장실은 물론 침대와 TV 등을 갖추고 있어서 생활에는 큰 불편은 없어 보였음
- 돈이 생기면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큰 집에 살고 싶다는 A씨는 아직 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한다면 장차 주택을 개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건물에 딸린 1000m²의 드문 드문 옥수수를 심고 한 구석에 닭장이 있었는데 동행한 현지안내자가 한국인들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어떻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문의하

여 양계업을 하면 굳이 많은 토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답하였음

<그림 4> TIBANA시 외곽의 주거환경개선 대상 가정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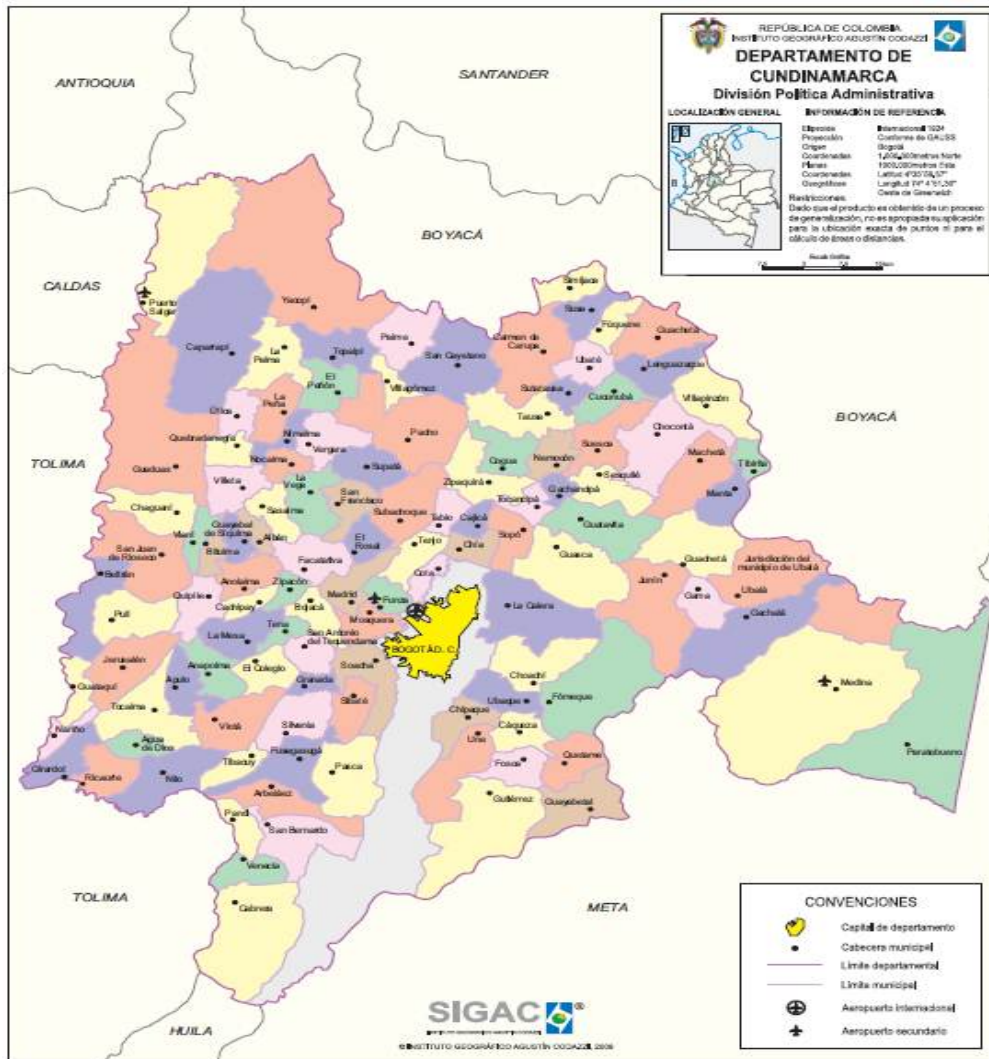


2. CUNDINAMARCA 주의 CHOCUNTA 시

□ 사례지역의 개요

- CUNDINAMARCA 주는 수도 보고타를 둘러싸고 있는 보고타인구 800만명을 포함 약 1,00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10% 정도가 극빈층에 해당됨
- CHOCUNTA 시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이지만 농업이 기반산업인데 축산과 낙농, 사탕수수, 카사바, 그리고 딸기와 채소 등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고 있음

<그림 5> CUNDINAMARCA 주와 CHOCUNTA 시



□ 사례지역 관련정책의 추진실태와 한계

- CUNDINAMARCA 주의 경우 거주자의 성격별 주택실태(바닥, 천장, 화장실 등)를 파악하고 있으며, 주단위 상수도계획(Water Plan)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자재 공급기지(Bank of Materials)가 있음
- CHOCUNTA 시의 경우 농촌주택이 흩어져 있어 건축자재를 공사현장까지 수송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얻기 어렵고 지

자체의 주택개량을 위한 제도적 지원제도가 부실함

-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① 5세 이하 아동과 임신부, 산모 등에 대한 무료급식프로그램, ② ICBF - Gobernacion de Cundinamarca간 아침 제공(Breakfast with Love)협약, ③ 어린이에 대한 학교간식, ④ 식품자급 농장(Food Security Farm)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자원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득원개발을 위해서는 숲 보호운동(Save-forest family), 농촌여성에게 500달러를 융자하는 미소금융제도, SENA에 의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산물 수요창출 메카니즘이 취약하고, 새로운 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문화적 저항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소규모 낙농업자의 공동 우유집유 사례 : APROLECHO

- 2004년 Chocun타시와 스위스계 건축자재회사인 Holcim 간의 협약에 의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우유생산자와 집유사업 추진
 - 소규모 우유생산자에는 ① 토지규모가 3.2ha미만이고, ② 농가당 소 5두 미만, ③ 한 마리당 하루 3리터, 총 10리터 미만의 우유생산자가 포함
- 그동안 집유 과정은 중간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가격이 불안정하고,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문제를 내포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유 생산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70명의 생산자(하루 600리터)가 조직을 하여 집유사업을 시작

<그림 6> 생산자단체가 냉각처리시설을 갖춘 공동집유장 운영



- 소규모 낙농업자들의 협동에 의한 집유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내역
 - Social Action이 냉각처리시설을 기증하여 하루 처리능력이 4천리터에서 6천200리터로 증가
 - 지방자치단체(Chocunta시)는 5천달러 기증
 - 소규모 생산자(회원)들에게 50~100달러의 미소금융 제공
- Chocunta 우유생산자협회는 현재 250명이 참가하여 하루 6,200리터의 우유를 집유하고 있음
 - 지난 4년 동안 훈련을 통해 마리당 하루 3리터에서 7리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Holcim의 지원으로 단백질과 지방, 수분, 산도, 항생제 등을 체크하는 실험실을 운영함으로써 우유의 품질도 향상
- Ms. Lusa Lopez씨(54세)는 3ha의 초지에 5마리의 소를

길러 하루 55리터의 우유를 생산하는데 생산과정에서 사
료와 약품 공동구입, 수의사진료 등의 혜택을 볼 수 있
고, 생산한 우유를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여 만족한다고 함

- 조합원은 가입비 15달러와 월 1.1달러의 회비를 납부해야 함

<그림 7> Ms. Lusa Lopez씨 농장에서 공동집유의 장단점 파악



□ 소규모 딸기생산자들의 선별·포장센터를 운영 사례 : FRESAT

- 지역의 딸기생산자 9명이 시작한 딸기생산자협회 (FRESAT)는 Hecium이 지원한 공동우유집유 사례를 딸기에 적용한 것으로 현재 회원이 25명으로 확대되어 44명의 부녀자를 포함한 연 612명을 고용하는 유통업체로 발전하고 있음
- 유통업체는 250명의 생산자들로부터 딸기를 위탁받아

등급별로 구분하고, 꼭지를 따서 포장하여 'FRESAT'란 브랜드로 보고타시장에 판매하고 있음

- FRESAT는 딸기생산과 수송 및 유통을 소규모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상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 규모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농업생산 및 유통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그림 8> FRESAT에서 제복을 입은 직원이 딸기꼭지를 따는 모습



IV.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해외 개발원조의 기본방향

□ 기존 개도국 원조방법에 대한 반성

- 원조의 형태를 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빈곤국에 막대한 원조를 하지만 미국 일본 등은 자국의 이익을 감안한 원조사업을 펼치고 있음
 -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해마다 25억달러의 원조를 받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자원 확보와 시장 개척을 위해 아시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 거액을 원조¹⁾하고 있음
- 개발원조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난 50년간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지원한 막대한 규모의 원조가 오히려 수원국의 맹목적인 해외 의존과 무기력을 고착화했다는 반성
- 원조국 입장에서조차 성과에 기반한 중장기적 국별 지원계획이 없이 일회성 프로젝트 위주로 이뤄지고 단순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예산낭비의 소지를 내포

1) 중국은 그동안 무이자 원조와 우대차관 등을 통해 개도국의 2천100여개 프로젝트를 개발을 지원했으며 이밖에도 기술협력과 물자, 의료설비, 개도국 인재 육성, 채무 탕감, 인력 파견, 무상원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2009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포함)를 제외한 35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해외 무상원조로 지출한 예산은 976억원이며, 관련 출장 비용만도 6억 2000만원에 달했다. 976억원은 지난해 한국의 대외 무상원조액 4675억원의 20.1%를 차지함. 캄보디아에 대해선 지난해 관세청·경기도 등 17개 기관이 22억원을, 베트남에 대해선 22개 기관이 46억원을 무상 지원하였는데, 기관별 평균액수가 1억2000여만원과 2억원 선에 불과해 제대로 효과를 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 2010년에도 21개 기관이 82개국을 상대로 332건(6000만 달러)의 초청 연수를 실시해 중복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중앙일보, 2010.10.23).

□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계획

-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45-95년까지 50년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약 127억 달러(약 70조 원)에 이르는 많은 원조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성공하였음. 1995년에는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에서 졸업하고,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원조를 주는 국가로 탈바꿈
-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지난달, 'ODA 선진화 방안(2010.10.25)'을 통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총액을 올해 0.11%인 1조2000억원 수준²⁾에서 5년 뒤인 2015년에는 0.25% 수준인 4조원 정도로 늘리고, 현재 64% 정도인 '비구속성 원조' 비율도 75%까지 높이기로 하였음
 - 2007년 이후 3년간 95억 원으로 동결되어 그동안 경제 규모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긴급구호 예산을 현행 ODA예산의 0.87% 수준에서 DAC 평균 수준인 6%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유상(차관)과 무상 원조사

2) OECD권고수준 0.7%, DAC 회원국 전체 평균 0.31% 보다 낮지만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업을 분리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고 ODA 전략 수립과 사업수행 주체를 총리실 산하 ODA 총괄부서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음.

□ 해외 개발원조의 바람직한 방향

- 세계시민으로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가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은 인도적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특히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로써 그동안 받은 원조를 국제사회에 되돌려 준다는 점과 개도국에 한국의 성공경험을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원조가 필요
 -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겸손하게 지원하되, 우리의 개발 경험과 사업 기술, 문화 콘텐츠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원조모델 개발
-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자 10대 무역국가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세계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등 국익을 위한 전략으로서 원조대상국가와 분야, 원조방식을 정립할 필요
 - 중국 일본과 자원외교 경쟁을 하고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시장 개척도 하려면 적은 돈이라도 생색나게 집행할 필요
 - 돈만 보내지 말고 전문 인력과 해외봉사단을 함께 파견해 인적 유대를 맺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를 강화

- 단순한 일회성-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수원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원국의 질적 변화 유도
- 원조사업 성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니터링시스템 개선
-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립능력을 길러주고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AFACI)’와 ‘한국-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를 통한 농업기술지원
 -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많았지만 일방적으로 주는 원조에서 해당 국가의 자립 능력을 키우고 농식품 생산량이 늘어나도록 농업기술 지원
 - 무상 원조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농업 기술 개발은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195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30~40년만에 가난을 극복했다는데 대해 개도국들이 큰 관심을 표명하고 그러한 정책을 이룬 한국의 개발경험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하고 있음

2. 사업 타당성검토의 전제조건

- 우리나라의 해외개발원조의 기본 취지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추진하되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문화컨텐츠를 결합하여 국제사회의 동반자관계 형성
- 농업·농촌분야의 경우 ① 한국의 새마을정신을 기초로

한 농촌마을개발사업, ② 주택이나 화장실, 목욕탕, 마을 안길 등 생활환경개선, ③ 농업용수개발이나 경지정리, 도로확포장 등 기반정비, ④ 농업생산-가공 및 유통기술 교육과 관련 시설지원, ⑤ 생산자조직화와 협동조합운동, ⑥ 농어촌특산단지나 농촌체험관광, 농공단지조성 등 농 외소득원개발과 일자리창출, ⑦ 농촌보건진료소나 방문진 료시스템을 통한 의료서비스제공, ⑧ 정보화마을을 통한 농촌정보시스템 제공 등 한국의 관련분야 사업이나 정책 프로그램 중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만한 것을 골라 지역 개발모델로 정립하고 이 가운데에서 수원국의 실정에 맞 는 개발모델을 선택-결합하여 적용하는 방안 강구

□ 수원국의 요청사항에 맞추되 그 나라의 여건과 자원, 관 련정책을 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사업 의 발굴 및 추진

- 수원국은 기후나 토양 등 자연조건은 물론 제각기 다른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 리의 경험을 전달하면 수용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도 떨어질 것임
- 현지의 자연조건과 역사, 문화적 토양위에서 우리나라의 농업·농촌분야의 개발모델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도입하거나 필요시 현지실정에 맞게 응용할 필요가 있 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원국의 관련 정책과 연계하고 현지인의 교육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원국 스스로 의 참여와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 임

3. 사전 제안한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 검토

□ 새마을운동모델 확산 사업

- 사전적으로 제안된 계획에 의하면 농촌빈민층(FUNTOS)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지역발전과 환경개선, 협동 역량제고 등 능동적인 지역개발 주체로 육성한다는 구상으로, 새마을운동(주민참여, 자조, 근면, 협동)에 초점을 맞춘 훈련프로그램개발과 지역사회훈련센터의 설립과 장비 도입을 구상
 - 예산사업으로는 지역사회훈련센터와 장비도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을 개소당 약 2만5천달러의 예산으로 5개 사업대상 시에 1개소씩 총 5개의 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사례지역(TIBANA, CHOCUNTA)을 방문한 결과 마을에 여러집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현지 농촌주민들은 여기저기 한 두집씩 흩어져 산위에서 목축을 하며 살기 때문에 마을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마을단위사업은 효율성에 문제
 - 특히 FUNTOS 대상은 한집에서 이웃집까지 3~4시간은 가야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화관 건립은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새마을운동의 확산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었음
- 다만 자조, 자립, 협동정신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잘 살아보려는 새마을정신을 교육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이를 구체화할 수 있

는 농촌지도자양성프로그램과 특정품목별 생산자협동조직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식품안전성향상프로그램

- 콜롬비아에서 식품안전성(Food Security)은 빈민층(JUNTOS) 가구에 대한 적절한 식품의 공급역량을 향상하고 영양측면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인 RESA프로그램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RESA프로그램은 Action Social을 통해 한국의 농촌개발원조기금 중 일부를 식품안전성향상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제안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호당 183.38달러의 예산으로 사례지역 300 가구에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종자·종묘보급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음
- 식생활은 오랜 문화의 소산으로 단기교육으로 성과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소득수준의 향상과 TV, 신문 등 매스미디어의 발전, 학교교육 등으로 건강에 대한 정보교류가 활발해 지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이란 단기간에 걸쳐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다소 사업목적이나 범위를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사업에 소규모로 분산·추진할 경우 사업관리나 모니터링에 많이 비용

이 소요되어 기대한 사업의 성과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당초 원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도리 우려가 있음

- 다만 빈민층을 포함한 영세농가에 대한 종자·종묘지원사업은 주민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화작물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신품종종자의 보급사업으로 경지정리나 가공 및 유통센터 건립사업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주거환경과 기본적인 위생시설 개선사업

- 빈민층(JUNTOS) 가구의 주택을 개량하고 내란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콜롬비아 정부가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주민들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주택개량사업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사전 제안된 계획서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호당 5,501.45달러의 예산으로 사례지역의 300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콜롬비아에는 수많은 빈민층과 난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개량은 누구나 원하는 사업이지만 수혜자들이 자부담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국가 재정부족으로 수원국 자체가 이렇다 할만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한정된 지원예산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연간 소득수준이 2천달러 남짓한 주민들에게 5천불 상당의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것은 원조의 근본적 취지에 맞지 않고, 한정된 예산으로 300명이란 불특정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나면 그 뿐이기 때문에 사업으로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새마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사업은 지붕과 부엌, 담장 개량, 화장실건설 등이 포함되는데 정부에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을별로 시멘트를 몇 포씩 지원하였지만 슬레이트 등 같은 자재는 자부담으로 마련한 것으로 결국 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이 힘을 합해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인만큼 정부, 혹은 외국에서 개별자산인 집을 고쳐주는 것은 새마을사업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판단됨
- 굳이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주요 건축 자재인 시멘트나 벽돌 공장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농촌소득원개발사업

- 농촌지역 빈민층(JUNTOS)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능력 향상과 재정지원을 통해 소득원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동을 조장하는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사전 제안계획서에 의하면 소득원개발을 위해 사례지역의 300가구를 대상으로 호당 9,867.24달러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음

- 사전 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지만 300명이란 한정된 수혜자들에게 호당 만불 정도의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구상은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취지나 지속가능성, 그리고 새마을정신 자체에도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구상이라는 판단임
- 수원국의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사례지역의 여건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활동을 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그 결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사례지역의 현지조사 결과 두 지역 모두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기초로 한 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TIBANA지역의 경우 친환경 유기농 채소·과일 및 우유제품 생산과 차별적 유통을 위한 생산기술 보급과 생산자조직화, 그리고 유기농비료공장과 농산물선별처리장(APC)시설 지원방안 강구
- 도시근교인 CHOCUNTA지역은 유리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농공단지 건설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강구

□ 사전 계획에 제시한 농촌개발사업 소요예산 추정의 문제

- 시범지역인 3개 도의 5개 시에 거주하는 빈민층(JUNTOS)는 총 1,773호인데 그중 57.9%인 1,026명이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도시지역(258명)과 도시근교(489명)에 거주하고 있음

- 농촌지역 거주자 300명을 선발하여 식품안전(183.38USD), 주택개량(5,501.45USD), 소득개발(9,867.24USD)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마을에 각기 1개소(25,000USD)의 회관을 건립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4,790,621USD가 됨
- 사례지역의 1,773호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1,062호 모두에게 같은 규모의 지원을 할 경우 전체 예산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16,081,424USD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2> 사업 대상지역별 소요예산 추정

(단위: USD)

사 업 지 역		대상가구		사업별 예산				
		전 체	농 촌	마을 회관	식품 안전	주택 개량	소득 개발	합 계
Magdalena	Algarrobo	92	6	25,000	1,100	33,009	59,203	118,312
	Chivolo	827	239	25,000	43,828	1,314,847	2,358,271	3,741,945
Boyaca	Tibana	127	127	25,000	23,289	698,684	1,253,140	2,000,113
Cundinamarca	Pame	161	152	25,000	27,874	836,220	1,499,821	2,388,915
	Yacopi	566	502	25,000	92,057	2,761,728	4,953,355	7,832,140
합 계		1,773	1,062	125,000	188,148	5,644,488	10,123,789	16,081,425

- 마을회관의 기능이 무엇이며, 콜롬비아의 사례지역처럼 여기 저기 한두집씩 흩어져 살아가는 주거형태에서 과연 마을회관이 필요한 것인지, 누가 무엇을 위해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었음
- 예를 들어 Algarrobo시의 경우 흩어져 사는 6가구를 위해 어느 곳에 마을회관을 만들어 누가 활용할지 알 수 없으며, 현지조사 시 방문한 Tibana시의 경우 2천명 정도 모여 사는 시 중심부에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건물과 시장, 집회시설 등이 있어 굳이 마을회관의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였음

- 더구나 사례지역의 빈민층 300호에 대해 15,552USD씩 나누어 주는 방식은 한정된 예산으로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수 있음. 특히 이들 지원이 한국의 경험에 기초한 적절한 지역개발프로그램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1회성 지원에 그칠 우려가 크며, 확산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없이 오히려 주민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큼

□ 사업추진체계 구상의 문제

- 사업계획에 의하면 통합적 농촌개발사업의 특징을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KOICA가 도별(3개 사례지역)로 각기 1명씩 3명의 관리자 채용하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1~2개 사례지역의 회관건립과 식품위생, 주택개량, 그리고 소득원개발사업의 집행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음
 - KOICA 현지사무소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전체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고 부문별로 전문가를 단기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콜롬비아측에서 농업농촌부는 물론 Action Social, Juntos, Resa, Incodor 등 여러 중앙부처와 시도단계 및 시군단계의 많은 유관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들 기관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다만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나 유관기관이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혼선과 예산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관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V. 콜롬비아 농촌개발을 위한 대안

1. 콜롬비아 농촌개발사업의 목적

- 콜롬비아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영세소농과 난민들에게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기초로 주민 스스로 소득원개발과 주거환경 및 식품안전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실증하는데 있음
- 주거환경개선과 식품안전성 확보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농촌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소득원개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콜롬비아 농촌개발의 내용과 접근방법

- 콜롬비아 농촌개발의 내용은 농촌지역 소득원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생산-가공 및 유통분야의 기술과 협동조합이나 새마을정신 등 정책과 경험을 중심으로 구상
 - 콜롬비아가 한국측에 요구하는 4가지 분야의 농촌개발 가운데 소위 새마을운동에 기초한 마을회관 건립과 주택개량사업 등 마을단위 접근방식은 넓은 공간에 산재하는 주거형태를 가진 콜롬비아의 지형적 특성상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안전성 확보문제도 농촌개발 본래의 취지를 희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농촌지역의 소득원개발은 지역의 여건이나 부존자원, 주민들의 개발의사 등을 종합해서 적절한 분야나 추진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현지조사 결과 사례지역은 모두 농축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영세소농들이 전근대적인 생산을 하고 있어서 노력여하에 따라 생산기술 향상은 물론 가공 및 유통분야의 발전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차별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지역자원에 기초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접근방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 친환경농자재생산 및 공급, 농산물의 선별-포장-가공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구성하여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필품생산이나, 지역특산물 가공, 또는 부업축산이나 특용작물재배 등을 하는 농가부업단지조성으로 농업이외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고타 외곽에 위치한 Chocunta지역의 경우 도로교통이 편리하고 시장에 가까우며 인근에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에 비농업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3> 사례지역의 소득원개발 가능성

지 역	지역의 여건	소득원개발 가능분야
Tibana	원격지, 저개발낙후 지역, 전통농업	친환경 과수·채소·낙농 생산기술,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및 농산물가공 및 유통시설(APC), 농촌체험관광농원, 농가부업단지조성(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기술지도, 판로개척, 홍보)
Chocunta	도시근교, 저개발농촌지역, 노동력 풍부	친환경농산물생산기술보급,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및 농산물가공 및 유통시설(APC), 농공단지개발

- 이상과 같은 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추진할 때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조, 자립, 협동 등에 기초한 새마을 정신을 훈련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작목반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됨

3. 콜럼비아 농촌개발을 위한 몇 가지 대안

□ 유기농채소, 과일·낙농분야 작목반구성과 기술보급사업

- 채소, 과일, 낙농 분야에서 소규모 생산자들이 협동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작목반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술과 농자재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백화점이나 호텔, 고급식당 등과 직거래를 통해 차별적으로 유통하는 방법임
-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자를 대상으로 유기농산물생산 및 차별적 유통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20명 내외)들을 모아 작목반으로 조직하고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 교육 및 실습을 한 이후에 한국에 초청하여 관련 농가를 견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개발

- 작목반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공장 및 농산물선별-포장-가공(APC)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자들의 작목반 참여 촉진

□ 유기농업에 필요한 퇴비(유기질비료)나 비닐등 자재공장 건설사업

- 전통농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자재를 도입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유기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비닐등 농자재공장을 지원하여 콜럼비아 농촌에서 친환경 백색혁명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농자재를 공급하는 방법임
-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으로 사례지역에서 유기농업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유기질퇴비와 농업용 비닐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건설을 지원하여 작목반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협동에 의한 지역농업발전을 유도하도록 함
- 유기농 채소 및 과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작목반 조직과 생산기술교육 등을 서로 연계하여 작목반이 사업주체로서 리더쉽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도록 기술 및 경영지도

□ 채소·과일 및 우유 선별-포장-가공(APC)시설지원사업

- 관행적인 방법으로 생산-소비하던 생계농에서 벗어나 상업적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품종이나 등급별로 선별하고, 세척·포장을 하거나 가공을 하는 수확후 처리과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됨

- 개별농가별로 생산하는 물량이 가공공장을 운영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작목반 단위로 규모를 확대하고 수집센터나 저온저장창고, 또는 선별-포장-가공 등 수확후처리작업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처리장(APC)의 건립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가공 및 유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유기농 채소 및 과일, 우유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작목반 조직과 생산교육 등을 연계하여 작목반이 사업주체로서 리더쉽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도록 기술 및 경영지도 필요

□ 관광체험농원조성지원사업

- 도시화·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자연경관이나 생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 일환으로 농업에 대한 체험관광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좋거나 역사·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이를 산업화 함으로써 농촌지역에 다양한 2·3차 산업이 융복합화 된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이 있는 농촌지역을 농어촌체험마을로 지정하거나 관광사업에 관심이 있는 선도농가를 관광농원으로 지정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지원과 기술 및 경영지도
- 농외소득원개발기금을 조성하고 그 중 일부를 체험마을 및 관광농원 당 일정한도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경영 지도, 선진지 견학기회

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

□ 농가부업단지조성지원사업

- 영세한 규모의 한정된 농경지와 가축을 가지고 있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이외의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부업)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농가부업은 주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소 및 과일 농가가 자투리땅에 토끼나 닭, 염소 등 가축을 기른다든지, 농사에 필요한 자재나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 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예: Tibana지역에서는 15 농가가 인초가공은 전통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
- 농가가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기술과 자본, 판로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농외소득원개발기금을 활용하여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개발, 판로확보를 위한 판매장 설치운영 등이 필요함
- 지역의 농업인과 가공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10~15명이 출자하여 마을단위 부업단지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계나 시설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농외소득 증대

□ 농공단지조성지원사업

-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에 기업들에게 분양함으로써 입주업체를 유치하여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임

- 농가부업단지가 농촌주민들에게 농업이외의 사업기회를 주는데 비해 농공단지는 취업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의미가 있지만 영세소농들이 농공단지에 취업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농경지를 다른 농업인이 활용할 경우 자연스럽게 영농규모가 확대되면서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콜롬비아의 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 나아가서는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교통이 편리하고 산업 입지조건이 좋은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99,000~330,000m²)를 조성하여 염가로 공업용지를 제공하여 농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고, 농가구원을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 KOICA는 공업용수와 동력인입, 진입도로, 오폐수처리시설, 기타 기숙사와 식당·체육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체의 유치 및 농가구원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등 역할분담 필요
- 농공단지개발은 기업체의 유치가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감면과 시설 및 운영 자금지원, 기술경영지도, 판로개척, 각종 규제완화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는 Incoder를 통해 농촌개발 4개

년계획에 농공단지개발사업을 정식 과제로 채택하여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MR. JUAN MANUEL OSPINA RESTREPO, 2010.11.19)